

광주 청소년 절반 ‘팬덤’ 활동…자기 계발은 줄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유명인 사진·영상 감상…굿즈 등 구입
교내 동아리 활동 83% 참여 안해
디지털 환경에 자기관리 지도해야

광주지역 청소년의 절반은 좋아하는 대중문화와 유명인의 CD나 DVD, 화보집, 책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대중문화에 몰입하는 ‘팬덤’ (Fandom)의 주요 활동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동영상을 찍는 지역 청소년들도 1년 새 늘었다.

2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광주지역 중학교 1학년생의 48.3%는 ‘팬덤 활동’의 하나로 책·CD·DVD·화보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1년에 한두 번 구매했다.

광주 청소년 10명 중 1명꼴(11.1%)은 1년에 한두 번 응원봉이나 캐릭터, 플레카드, 인형 등 관련 ‘굿즈’를 샀다. 일주일에 여러 번 샀다는 답변도 1.2%였다. 이른바 ‘덕질’(열성 팬 활동)을 위해 지갑을 여는 것 외에도 광주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광주 청소년 68.1%는 유명인 사진과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이를 온라인에 올리며 공유하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이 29.0%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번 20.2%, 일주일에 1번 14.5%, 일주일에 여러 번 4.4% 등이 뒤를 이었다.

5명 중 1명(20.4%)은 팬덤 활동을 위해 한 달에 1번 이상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트위터,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았다. 9.7%는 팬클럽이나 팬 카페에 가입해 일주일에 1번 이상 활동했다.

광주 중학교 1학년생에 물어보니 선호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지난 2024년 45.7%로, 전년(42.9%)보다 늘었다.

청소년의 대중문화 몰입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로 이어졌지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이용 빈

도도 갈수록 늘고 있다.

광주 중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했는지 묻자 70.6%가 참여했다고 답했다. 전년(40.8%)보다 3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문화·예술 활동에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은 32.5%로, 전년(11.8%)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는 과학정보 활동(1.4%), 모험개척 활동(18.3%), 자원봉사 활동(15.4%), 직업진로 활동(13.4%), 건강보존 활동(6.7%), 자기(인성) 계발 활동(4.3%), 환경보존 활동(5.2%)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자기 계발 활동 참여도는 오히려 줄었다. 교내 공식 동아리 활동에 지난 1년간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76.5%에서 83.0%로 늘었다.

팬덤 활동의 주요 영역인 소셜미디어 이용과 사진·동영상 촬영은 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광주 청소년은 2023년 39.4%에서 이듬해 56.6%로 증가했다. 스마트폰으로 자주 사진·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답변은 1년 새 20.6%에서 27.3%로 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강지우·하정희)이 지난해 매년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스타와 팬, 팬과 팬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채로워졌다”며 “손흥민,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의 스타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게 됐고, e스포츠의 부상으로 게이머와 같은 프로게이머도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그 흐름은 더욱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기는 여가로서 문화예술 영역과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인 흥미를 보이는 시기인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며 “또래 문화이자 사회현상인 팬덤활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기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故 이해찬 전 총리 ‘민주평통·민주당 기관·사회장’ 엄수

5·18민주광장에 분향소 설치

베트남 출장에서 타계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민주평통·더불어민주당 기관·사회장’으로 격상돼 엄수된다.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전 총리의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사회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운 저명인사가 서거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하는 예우 갖춘 장례 의식이다.

고인의 유해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

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동구 5·18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객을 맞는다. 분향소는 고인의 유해가 국내에 도착하는 27일부터 발인이 진행되는 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헌화하고 분향하며 고인의 넋을 기릴 수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분향소 운영 첫 날인 27일 오전 11시, 양부남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시·구의원 및 주요 당직자들이 집결해 합동 분향식을 거행한다.

한편, 이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현지 출장 도중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진 뒤 25일 향년 73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미국서 계란이 왔어요~

26일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계란 수입 업체에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을 비롯한 식약처, aT,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미국산 신선란의 제품화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제품화 과정을 거친 미국산 수입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의 일부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청년 구직활동 돕는다…지원사업 참여자 1500명 모집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광주시가 고물가와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지역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수당’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2026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15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총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취업 준비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광주시의 대표적인 청년 보장 정책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 활동비가 ‘클린카드’ 형

태로 지급된다.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취·창업 준비, 직무 역량 강화, 기업 탐방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 기간 내에 조기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경우 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구직 의욕을 고취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편의를 위해 모집 방식이 대폭 개선됐다. 기존의 불규칙했던 모집 일정을 목표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매월 모집’하는 상시 제도로 전환해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했다.

1차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 학력을 마친 졸업

자(종퇴·제적·수료 포함)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 활동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은 예비 교육 이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시작된다.

권운수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번 수당 지원이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9163명의 지역 청년에게 207억여 원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김치축제, 국가대표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광부, 2년간 국비 4000만원 지원…보성다향·영암왕인문화축제도

광주를 대표하는 미식 축제인 ‘광주김치축제’가 정부로부터 콘텐츠의 우수성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우뚝 섰다.

〈관련기사 5면〉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광주김치축제를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했다. 문광부는 올해 기존 20개의 축제에 7개의 새로운 축제를 추가로 지정했다.

광주에서는 김치축제가 유일하고 전남에서는 보성다향대축제와 영암왕인문화축제가 포함됐다.

이번 평가는 축제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다. 축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수용 태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라 광주김치축제는 앞

으로 2년 동안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 홍보 마케팅과 특화 관광 상품 개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축제 운영 컨설팅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광주김치축제의 이번 도약은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32회 축제는 ‘우주최광(光) 김치축제’라는 독창적인 주제로 5만7000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특히 축제 기간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0억5000여만원을 달 성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경제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지역 총판 모집 안내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국내 최초 렌탈공급 등록 업체

1억원 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120251388541
장래인 인증:제2024-089

DB

주요 공급 대상

▶ 초·중·고·대학교, 각계 정부기관, 군부대, 종교
▶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기업, 삼성, LG, SK 등 기타
▶ 교실, 강의실,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업의 강점

▶ 국내 최초 렌탈 및 정부조달 방식으로 무한 수익창출
▶ 교육기관 및 행정 공공기관, 군부대, 종교단체, 대기업
▶ 시장 안전성, 지속적 성장 특별 초기 참여부담 우선권 제공

창업 기회대상

▶ 다년간 행정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유사 직종 퇴직자
▶ 교육 행정기관, 군부대근무 종교단체 지역 기반 경력자
▶ 조직관리 지역총판, 새로운 창업 희망자 우대

엠케이솔루션(주)

연락처 : 010-2366-884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복희(560108-1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상리로9번길 23(상동)
피상속인 망 박복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6노단5호로 신청하여 2026년 1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27일
• 상속인 : 박세심(850117-2XXXXXX)
경주시 외동읍 외남로 1737-15, 107동 502호(입실리, 경주외동미소자움 아파트)
• 신고기간 : 2026. 1. 27. ~ 2026. 4. 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세심의 주소

74년을 밝히려는 호남연인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kwangju.co.kr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4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날

광고문의 (062) 227-9600 예향구독 (062) 220-0550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